

# 머리의 형태별 특성에 따른 모자류 치수체계 연구\*

## A Study on the Sizing System of Head Wears According to the Head Types\*

동명정보대학교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임지영

Dept. of Fashion Design, College of Design,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 Jiyoung Lim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고찰 |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standard sizing system for college female students' head wears according to their head types. The subjects were 193 college women, of 20 to 25 years-old. The subjects were directly measured anthropometrically and indirectly analyzed photographically. In previous study (Lim, 2004), 3 clusters as their head types were categorized.

The sizing system, which had frequencies more than 4%, was classified 6 cases, 7 cases and 9 cases, respectively, by head 3 types. 3 types of size system, which were 56-28-38, 56-30-38 and 57-28-38 (Eds note: which of the measurements are head girth, surface length 1 and surface length 2), which were included in 3 clusters. Although head girths were as the same, head surface length was different in size. On the contrary, head surface length was same, head girth was different. The result will contribute to fitness of head wear fitness of consumer, and the amount of production.

**주제어(Key Words):** 치수체계(sizing system), 치수간격(size interval), 모자류(Head wears), 머리 형태(head type)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Lim, Dept. of Fashion Design, College of Design,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535 Yongdang-dong, Nam-gu, Busan, 608-711, Korea Tel: 82-51-610-8554 Fax: 82-51-610-8529  
E-mail: limjy@tit.ac.kr

\* 본 연구는 2004년 동명정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로 수행되었음.

##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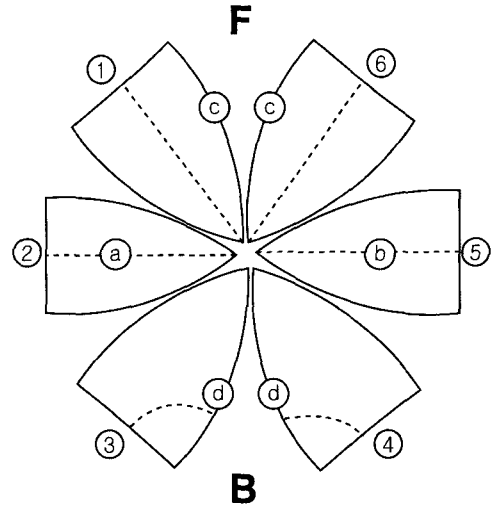
액세서리는 의복을 보충해 주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여러 형태로 발전해 오면서 사용방법에 따라 의복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개성과 이미지까지 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액세서리 사용은 어떤 의미에서 의복의 착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경순 등, 1998). 남녀 공용의 액세서리 중 모자는 더위, 추위 및 자연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 주는 실용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장식성이 강한 소품으로서 남녀노소에 널리 착용되는 패션 아이템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포츠용이나 캐주얼용으로 모자를 즐겨 쓰는 추세이며 생활에 여유가 풍부해지면서 레저나 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모자가 나오고 있다.

모자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사이즈를 맞춰서 착용하는 것까지 사이즈 또한 다양하게(이진희, 2002) 제작되고 있으나, 기능적 역할로서 모자가 착용되어질 때 모자의 사이즈나 형태는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챙모자의 패턴 전개도를 보면(〈그림 1〉참고), 전개도의 ㉓ + ㉔는 좌우귀구슬점간 표면길이이며, ㉑ + ㉒(곡선부분)는 눈살점에서 뒤통수점까지의 표면길이, ①~⑥까지의 합은 머리둘레 치수에 해당되는 부위로, 머리둘레뿐만 아니라 머리 표면길이도 모자의 패턴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규격(KS K 0059: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자의 치수 분류표에서는 기본 부위로 머리둘레 치수를 기준으로 1cm 간격으로 사이즈 체계를 구성하여 모자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참고부위로 머리두께와 눈~턱 끝 길이만을 제시하고 있다(〈표 1〉참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자류의 치수표기를 조사해 본 결과 남녀 구분 없이 56~58cm의 치수로 표기하거나, 머리둘레 치수를 수치로 나타내지 않고 XL, L, M, S 등으로 분류하거나 혹은 프리사이즈로 표기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혼란을 더욱 초래하고 있



- ㉓+㉔ : 좌우귀구슬점간 표면길이  
 ㉑+㉒ : 눈살점~뒤통수점까지 표면길이  
 ①~⑥까지의 합 : 머리둘레 치수

〈그림 1〉 챙모자의 패턴 전개도

〈표 1〉 모자의 치수 분류표(KS K 0059)

(단위:cm)

호 칭	기본부위	참고부위	
	머리둘레	머리두께	눈-턱끝길이
50	50	16	10.5
51	51	16.5	11
52	52	17	11
53	53	17	11
54	54	17	11
55	55	17.5	11.5
56	56	17.5	11.5
57	57	18	11.5
58	58	18	11.5

다. 또한 머리둘레가 맞지 않을 경우를 위해 모자 뒷부분은 거의 버클 등으로 치수조절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표 2〉참고). 즉, 머리둘레 치수만을 기본 부위의 치수로 모자를 제작하고 있으며 머리 형태와 관련된 여러 부위의 치수는 모자 제작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의복의 인체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체에

〈표 2〉 시판 모자류의 치수 표기 현황

브랜드	사이즈 표기	치수조정 방법
나이키	Free	버클
아디다스	Free	버클
빈폴	Free	버클
폴로	Free	버클
후부	Free	버클
오클리	S-M, L-XL	구멍조절
퀵실버	56,58	구멍조절
엔진	Free	버클
EXR	M=56, L=58	버클
MLB	S=55, M=57	구멍조절

대한 체형 연구는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의복류의 치수체계도 인체의 치수 뿐 아니라 형태요소를 반영한 유형별 치수체계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토탈패션으로서 의복으로 착용되고 있는 모자, 장갑, 양말류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체 부분별 연구는 아직 미흡하며, 특히 장식성과 기능성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자류의 적합성과 관련한 치수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임지영, 2004)에서 제시한 머리의 형태별 특성을 기초로 유형별 치수분포를 고찰하고 각 유형의 머리형태에 적합한 모자류의 치수체계를 설정함으로써 미적이고 착용기능성이 뛰어난 모자류 제작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머리형태 분류

본 연구에서는 20~25세의 여대생 193명을 대상으로 2003년 3월~7월에 직접계측과 간접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임지영, 2004) 결과 분류된 3가지 유형의 머리형태를 토대로 각 구간별 치수빈도 분포를 조사하였다.

### 2. 치수간격 설정

모자의 패턴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자류 패턴제작과 머리형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항목으로 머리둘레와 머리의 좌우길이 및 앞뒤길이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눈살점에서 뒤통수점까지의 표면길이, 좌우귀구슬점간 표면길이의 3개 항목을 정하고 3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치수간격을 설정하였다.

머리둘레는 모자의 치수 분류표(KS K 0059)와 업체에서 현재 사용중인 사이즈 체계를 참고하여 1cm로 치수간격을 설정하고, 눈살점에서 뒤통수점까지의 표면길이는 전체 평균길이 30cm(평균값을 소수점 아래에서 올림한 값)를 기준으로 2cm(표준편차 값을 소수점 아래에서 올림한 값), 좌우귀구슬점간 표면길이는 전체 평균길이 38cm를 기준으로 2cm로 치수간격을 설정하여 머리형태별로 치수빈도를 분석, 제시하였다.

### 3. 유형별 치수체계 설정

모자류 치수간격에 대하여 구간별로 빈도를 분석한 후 4%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구간을 채택하여 유형별 치수체계를 설정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머리형태에 따른 유형별 특성

선행연구(임지영, 2004) 결과 유형별 계측항목의 평균값과 남자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진희, 2003)와의 평균값 비교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유형 1은 머리둘레와 두께의 평균값이 가장 낮으나 머리길이 등의 수직길이 항목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유형 2는 둘레, 너비, 두께, 길이 등의 평균값이 세 유형의 중간이며 머리두께/머리너비의 비가 세 유형중 가장 1에 가까워 머리 단면은 동그란 형상을 이룬다. 유형 3은 둘레항목과 너비, 두께

〈표 3〉 머리형태에 따른 유형별 계측항목의 평균,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단위:cm)

항 목		계측치	본 연구					이진희 (2003)
			유 형 1 (66명)	유 형 2 (83명)	유 형 3 (44명)	F-value	전체평균	
둘 레	머리둘레	55.21 b	55.61 b	56.84 a	20.635***	55.76	1.45	56.1
표면길이	눈살점 ~뒤통수점까지 길이	29.23	29.61	29.79	2.364	29.52	1.41	29.9
	좌우귀구슬점간 길이	37.63 b	37.85 b	38.70 a	9.083***	37.97	1.38	40.9
너 비	머리너비	15.46 b	15.58 b	16.04 a	18.817***	15.64	0.54	15.8
	귀구슬점너비	14.23 c	14.45 b	15.03 a	43.645***	14.51	0.53	-
두 께	머리두께	17.60 b	17.49 b	18.62 a	30.452***	17.79	0.93	17.8
	머리앞두께	9.80 a	9.10 b	9.68 a	27.511***	9.47	0.68	-
	머리뒤두께	7.80 c	8.38 b	8.94 a	47.384***	8.30	0.74	-
수직길이	머리길이	22.42 a	21.93 b	21.70 b	4.803***	21.96	1.22	-
	눈~턱끝점까지의 길이	10.33 b	10.21 b	11.13 a	23.619***	10.46	0.82	-
계 산 치	머리두께/머리너비	1.14 ab	1.12 b	1.16 a	5.316***	1.13	0.064	-
	귀구슬점두께/귀구슬점 너비	0.64 a	0.56 b	0.65 a	55.516***	0.61	0.069	-

\*\*\* :  $P < .001$ 

S-N-K 다중범위검정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간의 차이를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 크기 순과 같다.

항목의 평균값이 세 유형중 가장 크고 길이항목은 가장 작으며 두상이 앞뒤로 튀어나오고 특히 뒤통수가 더 튀어나온 형상이다.

유형 1과 유형 2의 머리둘레 값은 전체 평균 머리둘레 값 55.76cm 보다 낮은 값이나, 유형 3은 선행연구의 남자 대학생 머리둘레 치수 56.1cm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유형 모두 표면길이는 남자대학생의 평균치 보다 작으며, 특히 남녀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항목은 좌우귀구슬점간 표면길이로 2.93cm의 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모자 제작시 머리의 좌우크기와 형태를 고려

한 패턴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2. 치수간격 설정

모자류 패턴제작 및 머리형태를 잘 나타내주는 3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치수간격을 설정하였다. 즉 머리둘레는 1cm, 눈살점에서 뒤통수점까지의 표면길이와 좌우귀구슬점간 표면길이는 2cm로 치수간격을 설정하여 머리형태별로 치수빈도를 분석,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표 6〉에 제시하였다.

유형 1은 3개 유형중 머리부위 수평치수가 가장 작으며 머리 수직길이는 가장 긴 유형이다. 머리둘레 54~56 구간에 46명(69.69%)이 분포되어 있으며, 눈살점~뒤통수점까지의 표면길이는 구간 28에 33명(50.00%), 구간 30에 24명(36.36%)이 분포되어 유형 1의 대부분의 피험자는 이 구간에 포함되었다. 좌우 귀구슬점간 표면길이는 구간 36에 24명(36.36%), 구간 38에 37명(50.06%)이 분포되었다. 4%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구간은 음영부분의 6개 구간으로 해당인원의 42.44%(30명)를 커버하고 있다.

유형 2는 3개 유형중 전체 평균에 가장 가까우며

머리단면은 동그란 형상이다. 머리둘레 56(31.32%)>55(27.71%)>54(16.86%)의 순으로 피험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눈살점~뒤통수점까지의 표면길이는 구간 28에 33명(39.75%), 구간 30에 39명(45.98%)이 분포되어 유형 2 전체 인원의 85.73%가 이 구간에 포함되었다. 좌우귀구슬점간 표면길이는 구간 36에 17명(20.48%), 구간 38에 58명(69.87%)이 분포되었다. 4%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구간은 음영부분의 7개 구간으로 해당인원의 62.65%(52명)를 커버하고 있다.

유형 3은 3개 유형중 머리부위 치수가 가장 크고 머리 수직길이는 가장 짧은 유형이다. 유형 1, 유형

<표 4> 머리형태 1의 치수빈도 분포

(단위:명(%) )

표면길이1 (cm)	표면길이2 (cm)	머리둘레(cm)								합 계
		52	53	54	55	56	57	58	59	
26	30									
	32									
	34									
	36		1( 1.51)		2( 3.03)					3( 4.54)
	38			2( 3.03)						2( 3.03)
28	30									
	32									
	34		1( 1.51)							1( 1.51)
	36	1( 1.51)	2( 3.03)	2( 3.03)	2( 3.03)	1( 1.51)	1( 1.51)			9(13.63)
	38		1( 1.51)	2( 3.03)	4( 6.06)	7(10.6 )	4( 6.06)	1( 1.51)	1( 1.51)	20(30.30)
30	30									
	32									
	34									
	36	2( 3.03)	1( 1.51)	6( 6.09)	1( 1.51)		1( 1.51)			11(16.66)
	38			2( 3.03)	5( 7.57)	4( 6.06)	2( 3.03)			13(19.69)
32	30									
	32									
	34									
	36					1( 1.51)				1( 1.51)
	38			1( 1.51)		1( 1.51)				2( 3.03)
합 계		3( 4.54)	6( 6.09)	16(24.24)	14(21.21)	16(24.24)	9(13.63)	1( 1.51)	1( 1.51)	66(100.0)

표면길이 1 : 눈살점~뒤통수점까지의 길이, 표면길이 2 : 좌우귀구슬점간 길이

〈표 5〉 머리형태 2의 치수빈도 분포

(단위:명(%))

표면길이1 (cm)	표면길이2 (cm)	머리둘레(cm)								합 계
		51	52	53	54	55	56	57	58	
26	30									
	32									
	34	1( 1.20)					1( 1.20)			2( 2.40)
	36				2( 2.40)	1( 1.20)				3( 3.61)
	38									
	40									
28	30									
	32									
	34									
	36			1( 1.20)		2( 2.40)				3( 3.61)
	38				5( 6.02)	8( 9.64)	9(10.84)	4( 4.82)	1( 1.20)	27(32.53)
40							1( 1.20)	2( 2.40)	3( 3.61)	
30	30									
	32									
	34									
	36			2( 2.40)	4( 4.82)	2( 2.40)	2( 2.40)			10(12.05)
	38			1( 1.20)	2( 2.40)	10(12.05)	12(14.46)	2( 2.40)		27(32.53)
	40								2( 2.40)	2( 2.40)
32	30									
	32									
	34									
	36						1( 1.20)			1( 1.20)
	38				1( 1.20)		1( 1.20)	1( 1.20)	1( 1.20)	4( 4.82)
	40								1( 1.20)	1( 1.20)
합 계		1( 1.20)	0( 0.00)	4( 4.82)	14(16.86)	23(27.71)	26(31.32)	8( 9.64)	7( 8.43)	83(100.0)

표면길이 1 : 눈살점~뒤통수점까지의 길이, 표면길이 2 : 좌우귀구슬점간 길이

2와 마찬가지로 머리둘레 구간 56(45.45%)에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다음으로 57(27.27%), 58(11.36%)의 구간으로 분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살점~뒤통수점까지의 표면길이는 구간 28에 20명(45.45%), 구간 30에 16명(36.36%)이 분포되어 유형 1, 유형 2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피험자는 이 구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좌우귀구슬점간 표면길이는 구간 38에 21명(47.72%), 구간 40에 17명(38.63%)이 분포되어 좌우귀구슬점간의 길이가 긴 구간에 많은 분포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유형별로 치수구간별 빈도수에 따른 시장성을 고려하여 특정구간의

생산유무 및 생산량을 결정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형 3에서 4%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구간은 음영부분의 9개 구간으로 해당인원의 68.18%(27명)를 커버하고 있다.

3개 유형 모두 머리둘레 구간 56에서 가장 많은 분포율을 나타냈으나, 눈살점~뒤통수점까지의 표면길이의 좌우귀구슬점간 표면길이의 분포율은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머리형태를 반영하지 않고 머리둘레 치수만으로 모자류의 치수를 분류하고 패턴을 설계하는 것은 적용 적합성에 문제가 있으리라 사려된다.

〈표 6〉 머리형태 3의 치수빈도 분포

(단위:명(%))

표면길이1 (cm)	표면길이2 (cm)	머리둘레(cm)						합 계
		55	56	57	58	59	60	
26	30							
	32							
	34							
	36	1( 2.27)						1( 2.27)
	38							
	40							
28	30							
	32							
	34							
	36	1( 2.27)	1( 2.27)					2( 4.54)
	38		5(11.36)	5(11.36)	1( 2.27)			11(25.00)
	40		3( 6.82)	1( 2.27)	3( 6.82)			7(15.90)
30	30							
	32							
	34							
	36		1( 2.27)	2( 4.54)				3( 6.82)
	38	1( 2.27)	3( 6.82)	3( 6.82)				7(15.90)
	40		3( 6.82)	1( 2.27)	1( 2.27)		1( 2.27)	6(13.64)
32	30							
	32							
	34							
	36							
	38	1( 2.27)	1( 2.27)			1( 2.27)		3( 6.82)
	40		3( 6.82)			1( 2.27)		4( 9.09)
합 계		4( 9.09)	20(45.45)	12(27.27)	5(11.36)	2( 4.54)	1( 2.27)	44(100.0)

표면길이 1 : 눈살점~뒤통수점까지의 길이, 표면길이 2 : 좌우귀구슬점간 길이

### 3. 머리형태별 치수체계 설정

모자류 치수간격에 따라 분류된 결과를 토대로 4%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구간으로 모자류의 치수체계를 설정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모자의 치수 분류표(〈표 1〉 참고)는 기본부위로 머리둘레 치수를 제시하고 참고부위로 머리두께 및 눈~턱끝길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자류의 치수는 머리둘레만을 56~58cm의 치수로 표기하거나, 머리둘레 치수를 수치로 나타내지 않고 XL, L, M, S등으로 분류하거나 혹은 프리

사이즈로 표기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의 결과에서 3개 유형에 공통으로 나타난 구간은 V표시를 하였으며 이 구간의 머리둘레는 56cm와 57cm로 나타났다. 유형 1과 유형 2에 공통으로 나타난 구간은 ⊙표시를 하였고 이 구간의 머리둘레는 54cm와 55cm로 나타났다. 3개 유형에 공통인 구간에서 머리둘레가 56cm인 경우 좌우귀구슬점간 표면길이(표면길이2)는 38cm로 동일하며 눈살점~뒤통수점까지의 표면길이(표면길이1)는 각각 28cm와 30cm로 차이를 보이고 반대로 표면길이가 같다

〈표 7〉 머리형태별 치수체계

	기본치수 <sup>1)</sup> (cm)	빈도(%)	커버율(%)
유형1	⊙ 54-30-36	6.09	42.44
	⊙ 55-28-38	6.06	
	⊙ 55-30-38	7.57	
	∨ 56-28-38	10.60	
	∨ 56-30-38	6.06	
	∨ 57-28-38	6.06	
유형2	54-28-38	6.02	62.65
	⊙ 54-30-36	4.82	
	⊙ 55-28-38	9.64	
	⊙ 55-30-38	12.05	
	∨ 56-28-38	10.84	
	∨ 56-30-38	14.46	
유형3	∨ 57-28-38	4.82	68.18
	∨ 56-28-38	11.36	
	56-28-40	6.82	
	∨ 56-30-38	6.82	
	56-30-40	6.82	
	56-32-40	6.82	
	∨ 57-28-38	11.36	
	57-30-36	4.54	
57-30-38	6.82		
	58-28-40	6.82	

1) 기본치수 : 머리둘레-표면길이1-표면길이2

표면길이 1 : 눈살점~뒤통수점까지의 길이

표면길이 2 : 좌우귀구슬점간 길이

⊙ : 유형1, 유형2에 공통인 구간

∨ : 유형1, 유형2, 유형3에 공통인 구간

라도 머리둘레 치수는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예: 55-28-38, 56-28-38). 따라서 모자류 제작시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머리둘레 치수만을 참고로 패턴을 제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머리둘레의 치수가 동일하더라도 표면길이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치수규격으로 분류하여 생산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분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생산비용을 높이고 낮은 곳에서는 생산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표 7〉에서 4%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구간의 전체인원에 대한 출현비율을 〈표 8〉에 제시하였다. 표면길이 1(눈살점~뒤통수점까지의 길이)은 28~30cm 구간, 표면길이 2(좌우귀구슬점간 길이)는 36~38cm 구간, 머리둘레

는 54~58cm 구간에 피험자의 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산되어 시판되고 있는 모자류의 치수가 주로 56~58cm이므로 착의 적합성을 위해서는 보다 작은 머리둘레 구간에서의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미적이고 착용 가능성이 뛰어난 모자류 제작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두부의 형태별 특성을 기초로 유형별 치수분포를 고찰하고 각 유형의 머리형태에 적합한 모자류의 치수체계를 설정한 것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머리부위 계측치를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 8〉 치수체계 구간별 출현비율 (단위:%)

표면 길이1 (cm)	표면 길이2 (cm)	머리둘레(cm)					합계
		54	55	56	57	58	
28	30						
	32						
	34						
	36						
	38	5.74	9.84	17.21	10.65		43.44
	40			3.28		4.10	7.38
30	30						
	32						
	34						
	36	9.02			2.46		11.48
	38		13.11	15.57	5.74		34.42
32	40						
	30						
	32						
	34						
	36						
합계	38			3.28			3.28
	40						
합계		14.76	22.95	39.34	18.85	4.10	100

표면길이 1 : 눈살점~뒤통수점까지의 길이

표면길이 2 : 좌우귀구슬점간 길이



선행연구(이진희, 2003)와 비교한 결과 유형 3의 머리둘레 치수가 남자 대학생보다 크게 나타났고 남녀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항목은 좌우귀구슬 점간 표면길이로 2.93cm의 차를 보여 성별에 따른 모자 제작시 머리의 좌우크기와 형태를 고려한 패턴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2. 모자류 패턴제작 및 머리형태를 잘 나타내주는 항목에 대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치수 간격을 설정하고 분포상태를 고찰한 결과, 3개 유형 모두 머리둘레 구간 56에서 가장 많은 분포율을 나타냈으나, 눈살점~뒤통수점까지의 표면길이와 좌우귀구슬점간 표면길이의 분포율은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머리형태를 반영하지 않고 머리둘레 치수만으로 모자류의 치수를 분류하고 패턴을 설계하는 것은 착용 적합성에 문제가 있으리라 사려된다.

3. 모자류 치수간격에 따라 분류된 결과를 토대로 4%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구간으로 모자류의 치수체계를 설정하였으며, 3개 유형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치수를 고찰한 결과 동일한 머리둘레 치수라도 표면길이는 구간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표면길이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치수규격으로 분류하여 생산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모자류 제작시 필요로 하는 기본치수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린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보며, 본 연구자의 피험자가 20대 여대생에 국한되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및 다양한 연령대에 따른 머리형태 및 치수의 차이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모자류 치수체계에 대해 보다 일반화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이경순, 김희섭(1998).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 이진희(2002). 두건류 제작을 위한 대학생의 두부 형태 분석.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21-122.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1997). 국민표준체위 조사개요, <http://www.ats.go.kr>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0). 의류치수와 관련된 KS 규격, A 5552:1997, KS K 0059:1999
- 이진희(2003). 성인 남성 모자를 위한 사이즈 체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553-558.
- 임지영(2004). 모자류 제작을 위한 여대생의 머리 형태 분류 및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2(6), 103-110.
- (2004년 6월 21일 접수, 2004년 10월 27일 채택)